■ 기획 특집 일곱교회

- ○ 에베소 교회
- ○ 서머나 교회
- ○ 버가모 교회
- ○ 두아디라 교회
- ● **사데 교회**
- ○ 빌라델비아 교회
- ○ 라오디게아 교회

사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1~3)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의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챤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시대의 모든 교회를 총칭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일곱 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곧 사데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당시 '사데'라는 도시는 염직공업이 발달하여 부요하였으나, 사치와 부도덕이 만연하였고 거대한 신전이 있는 이방 종교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사데 교회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데 교회에 편지한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라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일곱 영이란 영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지 등 그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응답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일곱 영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영이 일곱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 자체이십니다(요 4:24). 따라서 일곱 영이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모든 인생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인 일곱 영을 보내십니다(계 5:6).

하나님께서는 일곱 영을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살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공의에 맞춰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비유하면, 일곱 영은 하나님 편에서 응답하기 위해 측정하는 저울과 같습니다. 고기나 야채 등을 살 때 저울에 달아 무게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에도 일곱 영의 측정에 비춰서 응답받을 조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무엇을 측정할까요?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 행실 등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측정하는데 크게 일곱 가지 측면에서 측정합니다.

첫째, 믿음을 측정합니다. 지식에 불과한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영적인 믿음을 측정합니다. 영적인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아도 의심 없이 믿으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마음에서 악을 버리고 성결한 만큼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둘째, 기도를 측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지 살피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습관을 좇아,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시므로 우리는 중심의 기도를 하되 욕심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기쁨을 측정합니다. 기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응답을 분명히 믿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은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죄의 담을 만들지 않음으로 화평을 이룰 때 마음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넷째, 감사를 측정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믿음이 아니므로 응답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계명을 지키는지 측정합니다.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계명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십계명은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이러한 십계명을 지키는지 측정하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므로 계명을 지킬 때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요일 5:3).

여섯째, 충성을 측정합니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주변의 모든 일에 충성하는지 살피지요. 물론 믿음이 있다면 항상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과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모든 분야에 충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여 죄를 버려 나가는 영적인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는 가운데, 생명을 드리기까지 충성할 때 온전한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사랑을 측정합니다. 사랑은 앞에서 살펴본 여섯 가지 분야를 온전하게 엮는 띠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모든 것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 영은 믿음, 기도, 기쁨,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을 측정하여 응답의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그 기준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공의롭게 측정하십니다. 곧 믿음이 작은 사람은 측정 기준이 낮지만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면 기준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일곱 별을 가지셨는데, 별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며 아브라함 자손을 별에 비유하셨지요. 여기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